三冬 찬 바람 속 새봄을 준비하네!

중봉 성파 대종사
조계종 종정



잎 떨어진 가지마다 새봄을 준비하는 열정이 가득하고, 언 땅 위에 보리싹도 웅크린 모습으로 찬 바람을 대적하니 수행승의 결의를 보는 듯하도다.

때로는 찬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영축산의 초목은 힘차게 펼쳐질 봄소식을 준비하도다.

제방의 수행도량에서 삼동 결재를 하고 산문 출입을 삼가며 화두 참구의 열기가 가득하니, 머지않아 화두가 타파되고 출격장부가 무수히 배출되리라. 그 서늘한 기상은 화택의 뜨거운 불길을 식혀주고, 큰 가슴은 중생의 지친 어깨를 감싸주며, 대립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중생들에게 감로를 베풀어 주도다.

보경호(寶鏡湖)에 드리운 영축산의 장엄한 모습처럼 수행을 통해 체득된 본래 청정하고 만덕을 구족한 마음으로 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면 예토가 바로 정토가 되고, 위기는 기회가 되며 질병과 전쟁은 저절로 소멸하리라. 사바세계에서 쉼 없이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이 한마음 청정해지면 자타가 본래 한 몸이며 수행을 돕는 소중한 도반의 인연임을 알게 될 것이로다.

번뇌 그친 곳에 법계(法界)를 뛰어넘는 지혜가 현전하고, 원력 수승한 곳에 모든 이들이 행복할 터전이 마련되도다.

久坐成勞永夜中 (구좌성로영야중)
煮茶偏感惠無窮 (자차편감혜무궁)
一盃卷却昏雲盡 (일배권각혼운진)
徹骨淸寒萬慮空 (철골청한만려공)

오랜 좌선 긴 밤 피곤하더니
차 달이며 한없는 은혜 느끼네.
한 잔 차로 혼미한 마음 물리치니
뼛속 스미는 맑은 향기 온갖 걱정 사라지네.

욕심없는 마음 正心으로 살라

도용 대종사
천태종 종정



圓覺이 普照하니 寂滅이 無爲라.
둥근 깨달음의 지혜가 두루 비추니
모든 차별의 경계가 사라지며
무명과 보리의 경계를 떠나
평등의 세계가 열리는구나.

마음을 깨치지 못하면 일체가 시끄럽고,
한마음 깨치면 일체가 고요하다.
무명의 꿈에서 벗어나 의지할 바 없는 금강반야를 증득하여 일심 삼보에 의지하라.

한마음이 깨달아 있으면 佛이요
올바르면 法이며, 맑고 청정하면 僧이니
삼보가 본래 한바탕이요
법계가 그대로 삼보의 다함없는 모습이라.
〈중략〉

언제나 일체중생의 행복과 함께
국운융창과 세계평화를 발원하며
인연의 소중함을 알고 욕심 없는 마음
正心을 지키며 청정하게 살아가는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화합과 혁신으로 새해를 밝힙니다

덕일 대종사
진각종 총인



새해 새날 대일여래의 광명이
우리 마음 속 서원의 법등을 환하게 밝힙니다.
우주의 운행이 쉼 없이 이어지듯
우리의 정진도 다함 없기를 서원합니다.

화합이란 온 우주와 나의 합일이자,
서로의 다름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원융무애圓融無碍의 세상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허물로 삼지 않고
각자의 지혜를 하나로 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충만해집니다.

혁신은 화합을 근본 바탕으로 하며,
참회를 통해서 바르게 완성됩니다.
상대의 허물을 나의 허물로 보는
지혜와 자비심이 곧 시작입니다.

우리 진각행자는 지심 참회불공으로
나와 가정의 인연을 바루고 종단과 국가,
온 법계의 인연을 감동, 교화시켜야 합니다.
〈하략〉

아름다운 인생을 살자

영산 홍파 대종사
관음종 종정



世道火宅人生短
佛子覺醒正念樂
聞思修行三慧路
共生共行到安樂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불자와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의 빛과 자비의 온기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세상은 국제 정세의 불안과 갈등이 이어지고,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였으나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쉼을 잃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또한 분열과 불신으로 서로를 살피는 여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중략〉

불자들아 깨어나라.
덧없고 무상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생활하자. 문(聞). 둘째, 부처님을 생각하며 올바른 견해를 갖고 살자. 사(思). 셋째, 주어진 인연을 가꾸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자. 수(修).

모두가 삼혜(三慧)의 삶을 확신하고 항상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자.

안락한 세상되게 함께 살아가는 힘찬 병오년을 축원합니다.

일념청정이면 세상은 봄과 같다

운경 대종사
태고종 종정



세개월신(歲改月新) 만상갱신(萬象更新)
일념청정(一念淸淨) 세계개춘(世界皆春)

해가 바뀌고 달이 새로워지니 삼라만상이 다시 태어납니다.

한 생각이 맑아지면 온 세상이 봄과 같습니다.

이 게송이 주는 가르침에 따라 병오년 새해는 밖의 변화보다 먼저 안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데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시회대중 여러분!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로서 쉼 없이 달리는 기운을 지녔습니다. 말은 앞으로 나아가되 방향이 바르지 않으면 길을 잃고, 힘이 넘치되 고삐를 놓치면 스스로를 다치게 합니다. 오늘의 시대 또한 그러합니다. 세계는 더욱 빠르게 변하고, 갈등과 분열, 탐욕과 분노가 서로 맞물려 인간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불자는 멈추어 서서 마음의 고삐를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혼란하다고 한탄하기 전에 내 마음이 혼란에 물들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하고, 말 한마디, 생각 하나가 어긋남이 없도록 세행(細行)이 반듯해야 할 것입니다. 병오년 새해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계율을 생활로 삼고, 자비를 언어로 삼으며, 지혜를 행동으로 삼는 불자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략〉

AI시대, 부처님 가르침 필요

지성 대종사
불교총지종 종령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서원합니다.

현재 세상은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양자컴퓨터의 개발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AI로봇의 작업 대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 인간의 삶의 환경변화, 인간과 AI로봇의 공존, 인간과 복제인간의 공존, 유전자 조작에 따른 생명윤리 등 여러 과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의 교화 방법론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AI) 시대는 인류에게 전례 없는 기회와 함께 윤리적, 사회적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전환의 물결 속에서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무엇보다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는 AI 개발과 활용에 있어 모든 중생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중생의 행복과 복지에 기여하는 윤리적 기준이 될 것입니다.
〈중략〉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에 대한 굳건한 신심과 덕행으로 자신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자비행의 실천과 부처님의 지혜의 증득으로 중생제도의 서원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전진!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본사 智異山大華嚴寺
문 장 은산 종국
회 주 송천 종열
주 지 경천 우석
신 도 회 & 사 부 대 중 일 동
주소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전화 종무소 061)783-7600 기도접수처 061)782-0011 www.hwaeomsa.com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